

사설

문화환경평가제 도입해야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국도 5km의 확포장 비용이 공기 맑히기에 배정된 예산보다 많다.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를 계획하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전통사찰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선원의 폐쇄가 예상됨에도 북한산 관동도로 재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북한산 국립공원 관동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가 주최한 '국립공원 내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화환경평가제 도입이 논의되었다는 소식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 문화환경 평가 대상까지는 논의가 나아가지 않았다.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수행환경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청이다. 소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가의 소음 규제치가 적용된다. 선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화환경영향평가제 추진을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모두 제안했다. 정당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길 바란다. 불교계의 역할도 활발해져야 한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회는 새로운 제도의 당사자이다. 특별기구를 구성해 사찰의 수행·문화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화환경영향평가제가 실시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불교의 많은 유형의 문화유산, 무형의 가치를 지닌 자신들은 불교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보전의 책임을 위임받은 일차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 또한 국민들로부터 관리와 보전의 책임을 위임받았다. 이점을 정부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성불교 활성화 하자

7월은 '여성주간(週間)'으로 시작했다. '여성주간'이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아직 여성들에게 공경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불교계는 어떤가. '평등사상'의 종교이면서도 그 전통은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불리하게 되어 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 그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이점 마땅히 고쳐야 한다. 불교는 신도 가운데 절대 다수가 여성으로 이들이 사찰 운영과 신도회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 종단을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이다.

7천여 명에 이르는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 수행과 생명존중에 기초한 헌신적 봉사, 평화와 환경을 위한 사회활동 등의 성과 또한 높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종단은 이런 역동성에 주목하고 그들의 저력과 가능성

에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교 각 종단은 의식의 구태를 벗어나는 일대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종단 정책을 결정하는 종무행정제 비구니 스님을 다수 참여시켜 차별적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여성 불자들은 기록적'이란 예단은 이제 접어두고 이들을 올바른 신해 행 중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

여성 불자 편에서도 변화를 위한 능동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신행 조직의 활성화와 자발적 참여, 청소년층의 조직 결성과 이를 돕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불자 층이야말로 한국불교의 미래적 자산을 확신하고 이들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 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일에 게으리 말아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대상 포교네트워크 구축

하나원·정착과정서 지역포교사단·사찰과 연계 법회

'좋은벗들' 불교배우기·역사탐방 운영

불교자원봉사련 현장체험 정착 지원

최근 중국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불교 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포교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그간 좋은벗들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로 대표되는 탈북자들에게 대

한 불교단체들의 지원은 통일운동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올 2월부터 매주 탈북자들이 이들에 대한 포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의 활동은 포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월 27일 조계종 불교시민사회단

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교사단의 '탈북자 대상 포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그것이다.

포교사단은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북한주민이 매년 두 세배씩 늘고 있지만, 기독교계의 선교로 65% 이상이 기독교 신자화(2001년의 경우 불자는 600명중 2.3%에 불과)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 사업에 나서게 됐다.

현재 포교사단은 서울경기 대학 팀을 중심으로 탈북자 관련 1차

정부기관(하나원 이전)에서 매주 목요일 법회를 개설, 평균 5~20명에 대한 불교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앞으로 2차 정착시설인 하나원 및 3차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도 지역포교사단 및 사찰과 연계해 정기법회 개설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능토록 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좋은벗들(이사장 유수스님)은 매일 한 차례 하나원에서 진행되는 '불교 배우기' 강좌와 합

계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개월간의 교육이 끝날 때마다 70~80여명의 교육생들이 경주지역 불교문화를 2박3일간 둘러보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아 포교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북한이탈주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2000년 12월부터 격월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재래시장방문, 고궁관람, 노래방, 볼링장 등 우리문화 체험을 통해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좋은벗들 노옥재 국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는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 100m내 건물높이 제한

서울시 보호조례개정, 경관지구 등 문화재위 심의거치게

국가문화재주변 100m이내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물높이도 제한된다.

서울시의회는 6월 29일 문화재 영향평가 실시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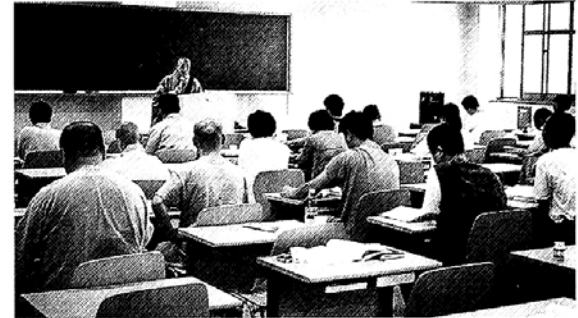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

재(100m) 시지정문화재(50m) 인근에 건설공사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문화재보존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건물높이는 문화재가 위치한 지표면에서 사선으로 27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보호구역 경계와 접한 필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을 경관지구나 보존지구, 사적건축물보존지구로 정할 때도 사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이 4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제1회 종무행정 강좌에서 강의하고 있다.

예비종무원 50명대상

첫 종무행정강좌 열어

조계종 종무원은 1일부터 5일까지 중앙승가대 김포화사에서 50명의 종무원과 예비종무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제 1회 종무행정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종무행정 강좌는 △종단 및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 △관공서 대응능력 향상 △사찰 실무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인근지역 도시계획 역사문화환경 중심 전환을

이희정씨 포럼서 주장

"조계사 인근지역의 도시계획을 도심업무기능에서 역사문화환경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2일 포럼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소살법전에서 열린 '조계사 포럼'에서 이희정씨(서울시정연구원 연구위원)는 '조계사 인근지역의 도시계획 수립과정과 변화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조계사 인근지역이 역사문화환경과 국민의 정신적 생활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세부적인

개선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인사동의 경우 전통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진 명소로 인식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의 도시계획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조계사 부근에는 별다른 도시계획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계사나 우정총국 등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우도우주의 도시계획이 계속 추진된다면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기획실장 종훈스님

조계종 종무원장 정대 스님은 2일 종무원 기획실장에 종훈스님(마천 보광사 주지, 인터넷 3면) 사회국장에게 지거스님(영양 영성사 주지)을 새로 임명하고, 문화국장 해안스님(전 재장국장)을 국장급 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전보 발령된 스님은 기획국장 태진전(조사국장), 감사국장 법승전(호법국장), 호법국장 의연전(감사국장), 조사국장 자공전(상임감찰) 스님이다. 사회국장 지거스님은 도원스님을 은사로 파계사에서 득도했으며,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85년 사미계, 8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원(수료) 문화예술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환경과 문화를 함께 살리려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병규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풍: '마하물' www.mahamall.com.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장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 관련된 문의나 투고 의견제보는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부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3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시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國師
 慈悲하신 遺教 智慧가
 具足하신 無上 國師 聖像
 이십니다.
 二五〇五年二月二十一日
 小僧 西翁謹書

第十五阿氏多尊者 化土中
 野外法壇 16羅漢像